

코스피	2632.07 (-11.06)	코스닥	720.22 (+0.81)
금리 (1년)	2.604 (+0.007)	환율 (원/달러)	1466.15 (+3.45)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尹 대통령 심판에 촉각

기각의견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87일만에 대통령권한대행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의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각 진영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이지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 의무는 없다고 보고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혼자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임명 보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기각 의견을 낸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

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의 결정적 요소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므로, 해당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기각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낮 12시쯤 국무위원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 여부가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며 "국민을 좀 더 편안하고 또 국정이 좀 더 안정되도록 하는 데, 이제까지 해주셨던 그 일을 계속해가면서 서로 힘을 보태 앞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5년 만에 돌아오는 '롯데의 후' 해외사업 확장 통해 한계 돌파

신동빈, 롯데쇼핑 사내이사 복귀 내수부진 한계극복 위해 '지휘봉'

싱가포르 등 PB 상품 수출국 확대 군산·잠실점 등 백화점 리뉴얼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복귀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직접 지휘하며 해외 사업 부문을 확장해 국내 내수 부진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롯데쇼핑은 내수 시장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해 롯데쇼핑 매출은 13조 9866억원, 영업이익은 4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 6.9% 감소했다. 국내 시장만으로 한계를 느낀 롯데쇼핑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 사업에 눈을 돌린 셈이다. 유통시장의 전통적 강호 롯데그룹이 내수부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24일 서울 영등포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총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 선임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롯데쇼핑은 신 회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본격적인 변화에 나설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에 올랐으나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유통 부문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셈이다. 롯데쇼핑은 신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를 기점으로, 업부별 사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내실을 강화해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주총회에 참여한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 대표 부회장은 "25년에는 고부가·글로벌 사업을 통해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해외 사업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부회장은 "국내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와 소비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 운영법인을 설립, 해외 사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베트남 복합쇼핑몰 사업인) 웨스트레이크(West Lake)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복합단지 및 쇼핑몰 중심의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수출국을 미국, 싱가포르, 동남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사업부의 경우 타임빌라스 군산 리뉴얼 오픈을 시작으로, 잠실점, 본점 등 주력 점포의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상권 내 경쟁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화점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 그룹사 복합 단지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2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D램·낸드 가격반등... 반도체 시장 '봄볕'

해외IB, 반도체社 실적 긍정 신호 올 하반기 슈퍼사이클 가능성도 삼성전자 영업의 전망 38% 상향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일제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온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기존 29조 4000억원에서 40조 8000억원으로 38.4% 상향 조정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9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5세대 HBM3E와 6세대 HBM4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SK하이닉스를 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조감도. /SK하이닉스·용인특례시

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일반 D램 가격이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가격은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고성능 D램인 DDR5(16GB 기준) 제품의 현물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4.9달러에서 5.1달러로 7.8% 상승했다. 7개월 만의 상승세다. 범용 D램인 DDR4(8GB 기준) 역시 지난

7일 1.442달러에서 현재 1.49달러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인다.

주요 제조업체들이 감산 정책을 지속하고 공급 조절을 이어가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낸드플래시 제조사 샌디스크는 내달 1일부터 모든 낸드 제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양쯔메모리(TMTC)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대만전자시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4월부터 낸드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장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범용 메모리 생산을 조정하는 한편,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메트로신문 2025 100세 플러스포럼 개최

오늘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강제 철거 지시... "관용 없어" /사진 뉴시스
▲ 안철수 "이재명, '韓 탄핵기각'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야... 트럼프와 전화 한통 못해"

▲ 개혁신당 "헌재,尹 위한 행위에 명확한 판단 내려야"
▲ 외교부,美·日·中에 韓대행 탄핵기각 설명... "양국 관계 변함없이 발전"

▲ 김문수 장관 "한덕수 직무복귀 환영...尹도 탄핵 기각돼야"
▲ 우원식 "헌재도 위험 명시...마은혁 즉시 임명해야"